

디지털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 
금융교육 강화방안

2021. 12.

금 융 위 원 회

# 목 차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주요내용 .....	2
III . '22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.....	3
IV . 주요 추진과제 .....	5
1.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.....	5
2.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.....	8
3.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.....	9
V . 향후 추진계획 .....	12

## I. 추진배경

- 스마트폰 대중화,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·디지털화(Digital Transformation)가 가속화
  - 금융회사는 대면서비스를 축소하면서(은행 점포축소·폐쇄\*),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등 온라인 서비스 영역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
    - \* 국내은행 점포수 감소추세('21.9월, 금감원): ('19년)△57 → ('20년)△304 → ('21.上)△79
  -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 확대\*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
    - \* 은행의 입출금·이체 업무 처리에서 인터넷·모바일뱅킹 비중은 70.9%('21.상반기, 한은)
- 다만,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없이는 디지털 양극화(Digital Divide) 문제가 심화되고 자산형성·노후대비도 곤란
  - 비대면·디지털 영업 확대로 인해 디지털 활용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 등의 금융서비스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으며,
  - 청년층을 중심으로 “영끌”, “빚투” 등에 의한 주식\*·가상자산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고, 이에 가계부채 문제까지도 심화\*\*되는 측면
    - \* 주식투자자 수 증가율('20년말, 예탁원) : 30대 이하 155만명 → 315만명(103%↑), 40대 이상 456만명 → 595만명(30%↑)
    - \*\* 세대별 가계부채 증가율('21.2분기, 한은) : 2030세대 12.8%, 비2030세대 7.8%
- 금융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저축하고 자식들과 노후생활을 위해 투자하며 자기 신용을 관리해 나가는 국민들을 위한 것임
  - 개인의 삶에 필수적인 자산형성을 위해, 청년층\*부터 고령층까지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긴요한 상황
    - \* “금융 Youth 포럼”(11.19.) 참석자 제안 : “금융 및 투자에 대한 교육이 소비자에게 큰 도움. 교육의 지속성·연속성을 위해 금융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”

➡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**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** 등을 목표로 “20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” 마련

## II. 주요내용

비 전	<p><b>인생을 위한 투자, 삶을 위한 금융교육</b></p>						
추진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실용적인 금융교육</li> <li>▶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</li> <li>▶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 지원 (신용관리 ~ 노후대비)</li> </ul>						
'22년 교육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아동기</u>부터 올바른 금융관 형성</li> <li>▶ <u>청·장년층</u>의 자산형성을 돕는 생활금융 교육</li> <li>▶ <u>고령층</u>을 위한 디지털 활용·금융피해 예방교육</li> <li>▶ <u>특수계층</u>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</li> </ul>						
주 요 추진과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padding: 5px;"> <b>① 전달방식 다양화</b> 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방식 확대</li> <li>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</li> <li>③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</li> <li>④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b>② 학교교육 강화</b> 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·중학교 필수 내용으로 생활중심 금융교육</li> <li>②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콘텐츠 보강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b>③ 교육체계 내실화</b> 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간 전문가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</li> <li>②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</li> <li>③ 교육기관 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<b>① 전달방식 다양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방식 확대</li> <li>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</li> <li>③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</li> <li>④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</li> </ul>	<b>② 학교교육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·중학교 필수 내용으로 생활중심 금융교육</li> <li>②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콘텐츠 보강</li> </ul>	<b>③ 교육체계 내실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간 전문가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</li> <li>②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</li> <li>③ 교육기관 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</li> </ul>
<b>① 전달방식 다양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방식 확대</li> <li>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</li> <li>③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</li> <li>④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</li> </ul>						
<b>② 학교교육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·중학교 필수 내용으로 생활중심 금융교육</li> <li>②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콘텐츠 보강</li> </ul>						
<b>③ 교육체계 내실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간 전문가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</li> <li>②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</li> <li>③ 교육기관 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</li> </ul>						
추진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「금융교육 운영규정」 마련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</li> <li>◇ '금융교육 협의회·워킹그룹' 운영을 통한 집행기반 강화</li> </ul>						

### III. '22년 금융교육 추진방향

#### 1 아동기부터 올바른 금융관 형성

- 아동기 금융교육을 통해 “돈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”을 형성하고, 소생애 개인의 생활금융 관리에 필요한 건강한 금융습관 함양
  - 용돈관리 등 실생활 연계 금융교육 내용을 강화하고, 미래지향적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

##### 【효과적인 교육방법】

- ▶ 아동들이 선호하는 게임·뮤지컬 등 체험형 교육 방식을 통해 금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
  - \* 초등학교 교사(78.8%)와 학생(64.6%)들은 게임 등 활동 중심 교육을 가장 선호(15.9월 학교금융교육 실태조사)
  - ⇒ ① - ①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방식 확대
- ▶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들의 금융교육 인식 제고도 필요
  - ⇒ ① - ④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

#### 2 청·장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생활금융 교육

- 최근 저성장·저금리 기조 지속으로, 청·장년층은 수입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
  - 투기성으로 접근하는 “빚투”가 아닌,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습관 정립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 필요
- 재무관리, 재무설계, 신용관리·위험관리 등 개인의 생활금융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청·장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

##### 【효과적인 교육방법】

- ▶ AI,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흥미유발
  - ⇒ ① - 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
- ▶ 예비 사회초년생인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을 준비하는 특성상 학교에서 정규교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,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정규교과 내 편성이 필수적
  - ⇒ ② - ②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콘텐츠 보강

### 3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및 금융피해 예방교육

- 은행점포 폐쇄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\*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활용교육을 추진

\* 70대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추세('16년 25.9% → '20년 40.3%,+14.4%)이나, 여전히 다른 연령대의 절반 이하 수준(과기정통부 「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」)

-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,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,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(Financial Exploitation) 등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실시

#### 【 효과적인 교육방법 】

- ▶ 고령층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1:1 또는 소규모 대면교육이 바람직  
⇒ ① - ③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
- ▶ 금융교육 지역협의회(11개 금감원 지원 소재) 등에서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지관·노인센터 등에서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  
⇒ ③ - ②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

### 4 특수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

- 특수계층(장애인·다문화가정·북이탈주민·신용유 의자 등)에 대한 교육은 계층별 특성이 모두 상이\*하므로, 확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

\* 예시) 신체장애인의 경우 교육참여에의 접근성 제고 및 전달방식 측면에서 접근 필요, 지적장애인의 경우 본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후견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

- 계층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며, 장애인·다문화가정 등 관련된 여러 기관·협회\*들과의 협업이 필요

\*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복지관, 여성가족부 산하단체, 새터민 지원 협회, 고용복지센터 등

#### 【 효과적인 교육방법 】

- ▶ 특수계층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(금감원,청교협,서금원,신복위,예보) 간 워킹그룹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
⇒ ④ - ③ 교육기관 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

## IV. 주요 추진과제

### 1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

#### ① (체험형 교육)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방식 확대

- 교육 콘텐츠를 보드게임·역할놀이(Role Playing) 등 체험형 교구재 중심으로 개편하여, 보다 재미있게 금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

※ (모범사례) 금융교육 게임 “더 로스트 시티(The Lost City)” [은행연]

\* 학교의 신청시 은행연에서 학교 강당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교육 실시

□ 태블릿 PC와 증강현실(AR) 기술을 활용한 IT기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

- ‘로스트시티’ 앱을 활용하여 은행zone, 메인게임zone, 금융감독원zone에서 미션을 수행하고, 금융지식을 습득

구 분	학습내용	세부내용
은행 zone	대출 및 원리금 상환	▶ 무역 초기자본 마련을 위해 서류 작성 후 대출 실행 ▶ 게임 중 추가 대출 또는 대출 상환 가능 ▶ 모바일 banking 활용, 대출이자 납부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 점수 및 이자율 차등
메인게임 zone	무역, 모바일뱅킹	▶ 가상 모바일뱅킹 앱을 활용하여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이익 ▶ AR을 활용한 위폐감별, 주택청약저축 QR퀴즈, OX금융퀴즈풀기 등 미니 게임을 통해 금융지식 습득
금융감독원 zone	금융사기 구제	▶ 금융정보 유출 피해 발생 ▶ 스미싱 피해 발생 ▶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문

- 금융회사 및 협회를 중심으로 체험관(3D 영상관, 전시홍보관, 체험학습관 등으로 구성),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

※ 현재 은행(8), 증권(2), 보험(1), 공공기관 등(2), 협회 및 금융유관기관(6)에서 체험공간을 운영 - 학교에서 금융회사·협회 등에 견학 신청시 현장 체험활동 제공

※ (참고) “전국 금융체험관 지도” 구축 [금감원]



□ 체험관 및 방문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집적한 「금융교육 체험 가이드북」을 제작(‘21.11월)

- 방문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, e-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내에도 구축 예정(‘22.1월)

\* e-금융교육 센터 > 교육프로그램 한눈에 > 체험형 교육 MAP

□ Naver지도와 연동하여 위치 등 상세정보를 확인가능

-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적시성 유지

## ② (디지털수단 활용)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

- 금감원 및 협회(은행연, 금투협 등) 중심으로 메타버스(Metaverse)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·확산

※ (모범사례) 솔버스(Solverse) : 신한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→ 금융교육 게임;  
이프랜드(Ifland) : 하나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→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 등

- 신기술 활용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상호 교류 및 참여 경험을 제공하여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

## ③ (대면교육 재개)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

- 코로나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취약계층 방문교육 등을 온택트(유튜브 등 실시간 소통)·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 공백을 해소

-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“금융사랑방버스” 등 대면 교육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재개하는 방안 검토

※ (참고) 고령층 맞춤형 “금융사랑방 버스” 운영방안 [금감원]

- (검토배경) ‘금융사랑방 버스’(12.6월 출범)는 그간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민원, 서민금융 상담, 교육 등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

\* 초기 연 150회 운행 등 크게 활성화되었으나, 유관기관의 상담전용 버스 별도운영으로 인한 수요감소, 코로나 확산 등으로 최근에는 운행이 다소 부진(20년 18회)

- (운영방안)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층 금융교육 기능을 특화

- ① 디지털금융 실습 교육(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하여 1:1 밀착교육)
- ②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 및 체험 기회 제공
- ③ 노후 자산관리 및 금융애로 사항 등을 상담하고 피해 접수

- (향후계획) 노인시설, 단체 및 지자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노후된 버스 시설 보수를 거쳐(~'21.12월) 정부 방역지침 완화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재개할 예정

## ④ (캠페인)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

- OECD는 금융교육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년 3월 넷째주를 “국제 금융교육주간(Global Money Week)”으로 지정하고 국제캠페인을 개최

※ '21년 미국, 영국, 중국 등 전세계 109개국이 참여하여 직접교육 28.2만명(청소년 12.8만명, 성인 15.3만명), 온라인 등 간접교육 2억 17백만명 실시

※ (참고) '22년 OECD 국제 금융교육주간 개요

구 분	행사주제
슬 로 건	<b>배우고, 저축하고, 벌리자!</b> (Learn, Save & Earn!)
행사기간	'22. 3. 21.(월) - 3. 27.(일)
행사주제	<b>미래를 준비하고, 금융을 배우자!</b> (Build your future, be smart about money!)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회원국 참여계획 설문 실시(11월) * 금감원, 금융연이 코디네이터로 참가 예정</li> <li>• 로고, 리플렛,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OECD 홈페이지에 공개(12월)</li> </ul>

- 내년 국제 금융교육주간에는 금융위가 주최하고 관련 학회(금융연, 한국경제학회 등)가 주관하는 “금융교육 활성화 컨퍼런스” 개최 검토
  - 이와 함께, 국제 금융교육주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주관하에 금융연·한은이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교육\*을 실시
    - \* (예시) 화폐박물관·증권거래소 방문, 온라인 금융 퀴즈대회 개최, 금융게임·뮤지컬 등 체험형 교육 실시 및 유튜브·SNS를 통한 홍보
  - EBS 등의 협조를 받아 금융교육 캠페인 영상 제작\* 및 관련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
    - \* 금융교육주간 행사 준비 및 참여영상, 금융교육주간 세미나 영상 등
- ⇒ 학생들이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

※ (참고) EBS의 금융관련 방송 및 부처 등 협조사례

① EBS의 금융관련 특집방영 사례

- ▶ 미래교육 플러스 - 금융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2부작('21.1.26~'21.2.2.)
- ▶ 다큐프라임 -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3부작('20.6.8~'20.6.10.)
- ▶ 다큐프라임 - 경제대기획 빛 3부작('19.12.16.~'19.12.18.)
- ▶ 다큐프라임 - 자본주의 5부작('12.9.24.~'12.10.02.)

② 외교부 - EBS, “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” 홍보 사례

- ▶ 외교부, 교육부와 EBS가 함께 기획
- ▶ “2019 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” 응원영상 등을 제작하여 외교부 유튜브 채널 게시('19.11.15. “외교부x펍수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릴레이 응원영상”)

③ 교육부 - EBS “위대한 강의” 협업사례

- ▶ EBS,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기획
- ▶ 경제/철학/인류학/예술 등 9개분야 46명의 강연자가 전문분야 강의('21.8.30.~)

④ 금감원 - EBS “올바른 투자습관” 협업사례

- ▶ 청소년의 올바른 투자습관에 대한 동영상 2편을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

## 2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

### 1 (초·중학생) 모든 학생이 필수 내용으로 **생활중심 금융교육** 실시

- (현행) 초·중등 교과목에서 금융부문은 '사회', '기술가정' 과목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, 그 비중이 높지 않음

\* 초등 고학년은 '실과' 과목에서 용돈관리의 필요성 탐색, 중학교 '사회·기술가정' 과목에서 합리적 선택과 소비생활, 자산관리, 신용관리 중요성 이해하기 등을 교육

- (개선) 2022 개정교육과정\*에서는 미국,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교과에 실생활과 연계하여 금융역량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 강화 추진

\*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등을 도입하는 「2022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」을 준비중이며 (22.하반기 고시), 개정 교육과정은 '25년부터 적용될 예정

⇒ 이를 통해, 학생들이 교과 이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하여 건강한 금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

※ (참고) 해외 주요국의 금융교육 추진 현황(20.8월, 자본시장연구원)

□ 미국·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초등학교부터 금융을 기존 교과목에 포함하여 교육

국 가	금융교육 총괄기구	학교내 금융교육 현황
미국	별도 전담기구 (FLEC, 2003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초·중등: 수학 등 기존 교과목에 포함</li> <li>▶ 고등학교: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</li> <li>▶ 17개주 의무, 45개주 교과 포함</li> </ul>
영국	별도 전담기구 (MAS, 201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초등학교: 통합 경제교육에 포함(의무화 논의중)</li> <li>▶ 중·고등: 사회 교과에 포함하여 의무화</li> </ul>
호주	감독기관 ASI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초등학교 고학년(5학년)부터 통합교과로 제공</li> </ul>
싱가포르	별도 전담기구 (MAS, 201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초등학교: 사회교과에 포함하여 의무화</li> <li>▶ 중·고등: 소비자교육 교과에 포함하여 의무화</li> </ul>

### 2 (고등학생)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실질적 콘텐츠 보장

- 교육부의 "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(11.24)"에 따르면, '경제' 과목 자체는 일반선택 과목에서 제외\*

\* 사회과 일반선택 개편안(9→4개): 세계시민과 지리, 세계사, 사회와 문화, 현대사회와 윤리

- 금융관련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“금융과 경제생활”이 융합선택 과목으로 신설될 예정\*

\* 금융관련기관(금감원, 금융교육학회) 및 기재부와 함께, 경제·금융교육 확대방안을 교육부에 지속 건의·협의를(21.7월~)한 결과

※ (참고) 2022 정규교육과정내 금융관련 교과목 개편 방향

구 분	2015 교육과정(현행)	2022 교육과정(개정안)
일반선택	경 제	-
진로선택		경 제
융합선택		금융과 경제생활(신설)
교 양	실용경제	인간과 경제활동

- 이에 맞추어, “금융과 경제생활” 과목 내에 교육콘텐츠(과목구성, 교수·학습자료 등)를 대폭 보강

- 특히 장래 금융권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선택과목 내용 구성에 적극 참여\*

\* 「금융교육 교과서 표준안(20.11월, 금감원)」을 정규교과 금융과목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'아동·청소년 분과 금융교육 워킹그룹(금감원, 청교협 등 9개 기관)'과 함께 연구

- 이와 함께 금융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일반 학생을 위해 공통과목인 '통합사회' 과목의 금융관련 내용을 보다 내실화

⇒ 이를 통해, 사회 진출이 임박한 고등학생들의 생활금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, 신용관리부터 미래 자산형성까지 지원

※ (참고) 「'20년 초·중·고 금융교육 교과서 표준안」 개요 [금감원]

- 금감원은 금융환경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 금융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등을 정립한 「초·중·고 금융교육 표준안」 개정 연구(20.11월)
  - 금융교육내용을 ①금융과 의사결정, ②수입과 지출관리, ③저축과 투자, ④신용과 부채관리, ⑤보험과 은퇴설계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성취기준 마련

I. 금융과 의사결정	II. 수입과 지출관리	III. 저축과 투자	IV. 신용과 부채관리	V. 보험과 은퇴설계
①합리적 금융생활	④예산	⑦저축	⑨신용관리와 대출	⑪위험관리와 보험
②개인 재무관리	⑤수입	⑧투자	⑩부채관리	⑫은퇴설계
③금융소비자 보호	⑥지출			
21개 성취기준	20개 성취기준	19개 성취기준	13개 성취기준	13개 성취기준

- 표준안을 반영한 초·중·고 금융교육 교과서와 교사지도서·사례집도 개발
- '22년 학교 교과과정 개편시 금융교육 부문 교과 개발에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

### 3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

#### ① (민간 참여) 민간 전문가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

- (현행)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위·기재부·교육부 등 8개 부처\* 고위공무원 및 금감원 금소처장이 위원으로 참여(금소법 §31)

\* (8개 부처) 금융위·기재부·교육부·행안부·여가부·공정위·복지부·노동부

-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\*도 위원으로서 정책결정 등에 함께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\*\*

\* 현재는 금융공공기관(예보, 서금원, 신복위), 교육기관, 금융협회, 학계 등 민간 금융교육 전문가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참여

\*\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개정안(3.25., 윤창현의원 대표발의), 「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(9.14., 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- 한편, 학생과 학교교사 등 실제 교육 수요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결정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필요

- (개선) 금융교육기관 자율규제 차원에서 「금융교육 운영규정\*」을 마련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,

\* 금감원 등 14개 금융교육기관 합동으로 금융교육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

- 정부 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말부터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, 필요시 「금소법」 등 개정도 추진

#### ② (지역 금융교육)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

- (현행) '15년부터 전국 11개 금감원 지원을 중심으로 “금융교육 지역협의회”를 설치·운영 중

- 각 지역협의회는 그간 별도 기준 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회원 기관을 구성하여 참여 필요기관\*이 미포함되거나,

\* (교육 수요기관) 지자체, 교육청, 지방대학, 소비자단체 (교육 제공기관) 신복위, 서금원, 금융협회 등 (기타) 기재부 지역경제교육센터 등

- 교육실적을 단순 파악하는 정도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

- (개선) 지역 금융교육 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, 지역협의회 간 교육·정보교류 강화

**① 협의회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기관을 확대**

- 지역경제교육센터\*를 포함하여, 금융·경제교육 시너지 강화

\* 기재부가 전국 15개 지역(서울인천, 충남, 강원 등)에 지정해 운영 중인 경제교육기관

**② 지역협의회 담당자 대상 “금융교육 실무자 OT” 및 협의회장이 참여하는 “지역금융교육 간담회”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**

- 금융교육 정책방향 및 교육자료(강의안, 교재 등) 공유

**③ (워킹그룹) 교육기관 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**

- 그간 교육기관별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간 역할 분담 방안\*을 마련(1차 금교협, '21.6월) → '22년부터 시행

\*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안건(교육기관간 역할분담, 콘텐츠 개발방향) 보고

- 내년부터 생애주기별로 4개의 워킹그룹과, 특수계층 워킹그룹 등 총 5개의 금융교육 워킹그룹을 상설 협의체로 운영

- 금감원(아동청소년, 청년기, 중장년기, 특수계층)과 예보(노년기)가 각 협의체 운영을 총괄

- 금융교육 워킹그룹은 교육신청 접수 현황,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(필요시) 인력풀을 상호 공유하고 콘텐츠 공동개발 등 추진

※ (참고) 5대 금융교육 워킹그룹 구성 방안

생애주기별 워킹그룹(WG1~4)				
구 분	아동·청소년 (WG1)	청년기 (WG2)	중·장년기 (WG3)	노년기 (WG4)
총괄기관	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	예금보험공사
협업기관	청소년교육협의회 등 8개 기관	투자자교육협의회 등 6개 기관	서민금융진흥원 등 6개 기관	시니어교육협의회 등 5개 기관
특수계층 워킹그룹(WG5) : 금감원(총괄기관)				
	장애인	다문화가정	북이탈주민	신용유일자
	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	청소년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	서민금융진흥원 등 2개 기관	신용회복위원회 등 3개 기관

## V. 향후 추진 계획

- 관계부처(교육부·기재부 등) 및 유관기관(금감원, 협회 등)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교육 강화방안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

실천 과제 및 추진체계 정비	담당기관	일정
<b>1.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</b>		
□ 게임·금융캠프 등 체험형 교육 확대		
○ 교육 콘텐츠를 체험형 중심으로 개편	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'22.4/4분기
○ 금융체험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홍보 강화	협회, 금융회사	'22.2/4분기
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·확산		
○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	금감원, 협회(은행연, 금투협)	'22.4/4분기
□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		
○ 온라인·온택트 교육콘텐츠 개발	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계속
○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교육을 재개	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'22.2/4분기 (잠정)
□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를 통한 교육·홍보		
○ 국제 금융교육주간 행사추진계획 수립	금감원, 금융연	'22.1/4분기
○ 교육청·학교에 홍보공문 발송, 보도자료 배포, 유튜브·SNS 활용 홍보	금감원, 교육청	'22.1/4분기
○ 금융교육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홍보	금융위, 금감원, 교육부	'22.1/4분기
<b>2.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</b>		
□ 초·중학교 필수 내용으로 생활중심 금융교육		
○ 초·중등 관련 교과에 금융내용 강화	금융위, 교육부, 금감원, 금융교육학회	'22.2/4분기
□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에 맞추어 실질적 콘텐츠 보강		
○ 금융 선택과목 내용구성	금융위, 교육부, WGI(금감원, 청교협 등)	'22.2/4분기

실천 과제 및 추진체계 정비	담당기관	일정
<b>3.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</b>		
□ 민간전문가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		
○ 가칭 “금융교육 운영규정” 마련	금융위, 금감원, 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'22.2/4분기
○ 민간위원 위촉 관련 정부 내 협의	금융위, 행안부	'22.2/4분기
○ 금융교육협의회에 민간위원 위촉	금융위	'22.4/4분기
□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		
○ 지역 금융교육 협의회 구성기준 마련	금감원	'21.4/4분기
○ 지역 금융·경제교육 협력 강화	금융위, 기재부, 금감원	'22.2/4분기
○ 구성기관 현황 자체점검·보완	금감원, 각 지역별 금융교육협의회	'22.2/4분기
○ “금융교육 실무자 OT” 및 “지역금융교육 간담회” 정기 운영	금감원, 각 지역별 금융교육협의회	'22.1/4분기
□ 교육기관간 금융교육 워킹그룹 활성화		
○ 워킹그룹 상시 회의 개최	금융교육기관(WG별)	'22.1/4분기
○ 반기별 추진실적을 금융위 보고	금감원, 예보, 청교협, 서금원, 신복위	'22.2/4분기